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8년 7월 8일(주일) 제1204호



비가 오는데도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성도들.

자발적 불편함이 행복함으로!

다음 주일(7월 15일)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재)녹색미래와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캠페인도 실시

다음 주일(15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일이다. 다음 주일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교회 올 때 자가용을 집에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와야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 오는 성도들을 위해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이촌역, 이촌역에서 서빙고 온누리교회,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양재역 환승주차장, 양재역 환승주차장에서 양재 온누리교회를 오가는 셔틀을 운행한다.

이날 교회 주차장은 장애인, 70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3개월 이하 자녀 동반, 다자녀 성도 등에게 발급되는 주차증을 부착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부득이하게 교회 주변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성도는 주차비를 개인이 내야 한다.

이날 서빙고 온누리교회 이천만 광장에서는 (재)녹색미래와 함께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캠페인도 실시된다.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캠페인에서는 '일회용 컵으로 다육식물 화분 만들기', '페트병으로 모자이크와 스테인드글라스 만들기', '폐우산 리폼' 등의 활동이 진행된다.

사회선교분부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이웃과 환경, 지역사회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

음으로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믿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이 좋은 캠페인의 취지와 의미가 되새겨질 수 있는 만큼 교회 주변 도로와 아파트 단지에 절대로 불법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다.

사회선교부가 주관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캠페인은 교회와 성도들은 물론이고 지역사회로부터 칭찬을 듬뿍 받고 있다. 2015년 4월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은 1년에 네 차례 실시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서빙고 온누리교회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9~10일 8시 30분부터 18시까지

온누리선교재단에서 서빙고 온누리교회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다. 7월 9일과 10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간헐적으로 사이렌 및 경고방송이 울릴 수 있다. 각 구역팀 및 장소 담당자는 피난시설, 방화시설, 계단, 소화시설 물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문의: 02-3215-3120

손신국 목사 평택 온누리 5대 담당목사 취임



손신국 목사가 평택 온누리교회 5대 담당목사로 취임했다. 지난달 24일 평택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이·취임예배를 드렸다. 손신국 목사가 취임하고, 김종민 목사가 이임했다. 손신국 목사는 "평택의 지역 특성을 살리고, 주민들에게 친숙한 평택 온누리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다짐했다.

전국대학청년수련회 'THE ONE'

8월 8일부터 11일까지 전주대학교 대강당

2018 전국대학청년수련회 'THE ONE'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THE ONE 수련회는 'Like Jesus(갈 2:20)'를 주제로 8월 8일부터 11일까지 전주대학교 대강당에서 막 오른다.

이상준 목사(양재 온누리교회), 김승수 목사(대학청년부 본부장), 이용규 선교사(내려놓

음> 저자), 정진호 교수(평양과학기술대학), 하정완 목사(꿈이 있는 교회), 이상익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상담학), 임은미 선교사(KOSTA 강사), 배상민 교수(KAIST 산업디자인학과)가 강의한다. 이성교제(김숙경 간사)와 이단(김강림 전도사) 관련 강의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

THE ONE 수련회 참가를 원하는 청년들은 등록을 서둘러야 한다. 1차 접수는 마감됐고, 2차 등록은 7월 18일, 3차 등록은 8월 1일 마감한다. 전주까지 이동할 차량이 필요한 참가자들을 위해 서울과 전주대를 오가는 셔틀이 운행된다. 참가신청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문의: 박정선 간사(02-3215-3745)

홈페이지: www.theone.or.kr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모른다. 그 시절을 산 사람들은 얼굴만 봐도 그가 얼마나 유명한 선수였는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도 “그냥 열심히 하는 선수였다”고 손사래를 친다.

김윤호 순장(관악금천공동체)은 농구선수 출신이다. 그것도 운동선수라면 누구나 꿈꾸지만 아무나 될 수 없는 국가대표 출신이다. 굵직한 국제대회에도 수차례나 출전했다. 농구선수 은퇴 이후 삶이 궁핍했는데 하나님만 정말 사랑하는 순장으로 변신해 있었다. 참 오랜만에 그를 만났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백배의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前 국가대표 농구선수 김윤호, 순장이 되다



엘리트 농구선수에서 멋진 신앙인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김윤호 순장.

“리바운드를 제압하는 자가 시합을 제압한다.”

수많은 남학생들을 농구코트로 모이게 했던 스포츠 만화의 레전드 <슬램덩크>의 명대사 중 하나다. 실제로 농구시합에서 성패를 가를 정도로 중요한 것이 리바운드다. 리바운드를 주로 하는 포지션이 센터인데 김윤호 순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센터였다.

“저는 센터치곤 체격이 왜소한 편이에요. 농구에 소질이 크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매일 새벽 운동하러 남산에 올라갔어요. 야간에 운동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힘들었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하늘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훈련한 그를 배반하지 않았다. 청소년 시절부터 국가대표가 되어 국제대회에 수차례나 출전했다. 물론 센터로서 좋은 신체조건은 아니었지만 실력만큼은 으뜸이었다.

“아시아청소년대회 두 번, 유니버시아드 대회 세 번, 올림픽에 한 번 출전했어요. 저는 스타플레이어까지는 아니었지만 이들 대회에

모두 출전한 이력을 갖고 있는 선수는 저 말고 별로 없을 거예요.”

잘나가는 엘리트 농구선수였지만 신앙은 뺄 점이었다.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유난히 마음을 단고 있는 사람 중 하나였다.

“어릴 때 교회에서 사탕이나 과자 같은 거 많이 나눠주곤 했잖아요. 저는 그 흔한 사탕 하나도 얻어먹은 적이 없을 정도로 교회에 거부감이 있었어요.”

사탕 한 조각도 얻어먹기 싫을 정도로 교회를 거부했던 그가 지금은 어엿한 순장이 되었다. 순원들을 다독이고, 교회에서 봉사도 참 많이 한다.

큰누나네와 친구 덕분에 예수를 만나다

김윤호 순장은 선수생활 은퇴 이후 지도자 생활을 하던 시절 하나님을 만났다. 원동력은 큰누나(김계순 권사)와 매형(조성현 장로, 이촌공동체)의 회심과 전도였다.

“큰누나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나보다더라고요. 그 힘든 시기를 신앙의

힘으로 이겨냈다고 하더라고요.”

큰누나네는 국비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갔는데 도중에 장학금이 끊어졌다고 한다. 얼마나 궁핍했으면 어린 아이 우유값조차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누나네가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았으면 아마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지도 몰라요.”

김윤호 순장의 말처럼 심적으론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큰누나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그 힘든 시기를 이겨냈다. 그리고 큰누나와 매형이 가족들을 전도하기 시작했다.

“저는 매형이랑 토론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아니냐, 살아계신다면 어떤 분이냐를 주제로 밤새 토론을 한 적이 많았어요.”

큰누나와 매형의 노력으로 교회에 대해 가지고 있던 견고한 거부감이 조금씩 사라졌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그를 전도했다. 이번에는 영어 잘하는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김윤호 순장이 본격적으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할 즈음 우리나라에도 프로농구 시대가 개막했다. 외국인 용병 선수가 많이 들어왔다. 김윤호 순장은 용병 선수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라도 영어를 배우려고 영어 잘하는 친구를 만나러 교회에 갔다.

“동시통역 교수로 일하는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 친구한테 영어 배우려고 교회에 갔어요. 처음에는 예배당 뒤쪽에서 팔짱끼고 앉아서 예배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렸어요.”

친구 만나려고 몇 번 교회에 나가면서 마음이 조금씩 바뀌었다. 어느 날부터가 주변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설교하는 목사님만 보이더라.

“정말 신기했어요. 목사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씩 마음이 열린 김윤호 순장은 ‘더 이상 헛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확신을 가지고 제대로 믿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때부터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기도하는 방법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몰랐지만 “제발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부르짖었다.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다. 방언의 은사는 덤으로 주셨다.

멋진 신앙인으로 물들어 가고 있다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김윤호 순장에게 하

나님은 여러 번 기도응답을 통해서 확신을 주셨다. 김윤호 순장은 선수로서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지만 은퇴 이후에는 광야와 같은 생활을 해야 했다.

“실업팀 코치를 하던 시절에 결혼을 했는데 한 달 만에 코치직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래도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어요. 자리가 금방 날 줄 알았거든요.”

오산이었다. 금방 날 줄 알았던 지도자 자리가 좀처럼 생기지 않았다. 앞선 데 뛴 격으로 IMF가 찾아왔다. 구직활동이 안되자 눈을 낮춰 고등학교 농구부 감독으로라도 가려고 했는데 이마저도 잘 안됐다. 백수생활이 길어졌다. 남은 건 시간뿐이었다. 그래도 남아도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성경을 소리 내서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성경읽기가 시간 때우기 용이었는데 신기하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있었다. 성경이 너무 재미있어서 두고두고 아껴 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다. 오죽했으면 아내가 “이러다가 당신 목사 되는 거 아니예요?”라고 걱정을 할 정도였다.

성경을 읽으면서 새벽기도를 하게 되었다. 새벽기도를 하면서 막힌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다. 40일 동안 새벽기도를 했는데 K대학교 농구부에서 코치직을 맡아달라고 연락이 왔다. 1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김윤호 순장은 정말 열심히 했고 시합에서도 승리했다. 내심 정식 코치가 될지도 모른다고 기대했다. 그런데 웬걸. K대학 농구팀은 김윤호 순장에게 1주일 분 급여 50만원과 특별수고비 조로 30만원을 보태 80만원을 지급했다. 그렇게 받은 돈을 고스란히 헌금했다.

“당시 제가 수입이 없던 시절이었었는데 선교헌금을 80만원 내겠다고 멋모르고 작성한 게 있었어요. 그 돈이 내 돈 같은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교헌금을 했습니다.”

여전히 성경을 읽고 있는 그에게 이번에는 방송국에서 프로농구 해설자로 와 달라는 제의가 들어왔다. 그렇게 한 시즌 농구해설을 하고 한 프로팀으로부터 코치직 제안을 받았다.

“제가 그 프로팀 코치를 맡게 되면서 받은 연봉이 제가 헌금한 돈의 백배나 되요. 하나님께서 백배의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코치와 감독으로 맹활약하던 그는 2011년부터 대학교에서 리더십 강의를 시작했다. 지도자에서 교육자로 또 한 번 진로를 바꿨다. 정말이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 그의 삶은 너무 멋진 신앙인으로 물들어가고 있다.



주일강단



박태영 목사

에스더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창조 목적대로 피조세계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지혜로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피조물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둘째,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선한 목적으로 모든 피조세계를 이끄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통치는 사랑을 기초로 합니다. 신자들은 세상의 악과 고통을 사랑으로 인내하고 미신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과정을 통해 주님이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는지, 오래 참으시는지를 뒤돌아 보게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에스더는 3일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자연인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확신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여인으로 거듭납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의지합니까? 나의 한계를 경험하고 나에게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입니다. 왕후이지만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에스더, 왕 앞에 나아가면 죽게 되는 현실, 하만의 강력한 정치적 힘 앞에서 무력감, 이것이 에스더에게는 두려움이자 무력감입니다. 사실 에스더의 상황 판단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는 옳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 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나쁠수록, 가능성이 없을수록 기뻐해야 합니다. 나의 가능성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기회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아름다움으로 부름받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나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3일 금식기도를 한 에스더에게 우리는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 그녀는 사람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째, 답을 얻으려고 하기 보다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태도를 갖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정할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정한 답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보이신 사랑의 통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섭리를 따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통치자, 구원자로 인정할 때 나오는 기도입니다.

첫째, 섭리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버지께서 돌보시고 책임지십니다. 에스더는 자신을 왕후의 자리까지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위기를 바꾸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둘째, 섭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을 세상이 보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감으로 존경받고 귀히 여겨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 사회적으로는 살육을 멈출 올바른 결정을 왕이 하도록 하시며 영적으로는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계심을 선포하게 합니다.

셋째, 섭리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합니다. 여기서 나라는 Kingdom, 통치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하수어로 왕과 하만도 페르시아의 정치적 리더로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통치방식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포함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사랑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리더로서 양심에 옳은 일에 대한 고민과 선택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방향을 고민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신자들과 함께 사회적 활동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섭리를 따르는 신자들의 사회적 결정의 동기와 행동을 보게 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도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장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살 때 세상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넷째, 섭리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

전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지가 창조가 되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 안에 있다면 세상의 어떤 공격과 위협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과 뜻 안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문제로 나아가십시오

에스더는 기도의 결과로 그녀의 영혼과 마음은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는 실천의 시간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도 순종하고 실천해야 열매가 맺혀집니다. 본문에 보면 에스더는 세 가지의 단계를 실천합니다.

첫째, 권위의 옷을 입었습니다. 에스더는 왕궁에서 왕후의 옷을 입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자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금식과 기도로 수척해진 모습과 목숨을 걸고 왕후의 옷을 입고 공적 자격으로 자신 앞에 나온 왕후를 본 아하수어로 왕은 에스더가 무엇인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을 알았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온 마음과 목적을 왕은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과 섭리를 옷입고 나아가면 상황은 변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집중하게 됩니다.

둘째, 문제를 피하지 않고 대면했습니다.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궁의 뜰로 나갔습니다.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그녀는 바라보았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그가 너를 피하리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문제는 곧 해답이 있는 곳입니다. 나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셋째, 악한 인격자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중하였습니다. 에스더는 왕과 하만이 악한 동기로 정치적 판단력을 잃고 악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왕에게 매우 겸손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왕의 권위를 인정하는 존중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태도는 에스더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음을 왕이 발견하게 했습니다. 왕의 인격은 매우 안 좋지만 그의 직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역할입니다. 그들의 악하고 악한 인격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섬김을 실천하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발견합니다.

이런 에스더의 태도는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5절에 “우리는 에스더가 부탁한 대로 할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기적의 도구가 된 에스더는 두 가지 태도를 취했습니다.

하나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태도는 에스더가 자신의 모든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높이 신뢰하고 인정한 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용기와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기준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섭리로 바뀌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다른 하나는 왕에게 대한 태도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주도적인 고백을 했지만 방법에 대하여는 주도적이지 않았습니 다. 그것이 섭리를 이루는 태도입니다. 에스더는 왕과 담판을 짓지 않았습니 다. 왕과 하만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기 좋은 기회와 상황을 그녀는 간절히 바랬습니 다. 그래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기에는 에스더의 깊은 기도와 왕과 하만에 대한 통찰이 있습니다. 왕은 자신을 높이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하만은 왕의 전권을 부여받은 총리입니다. 여기서 직령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밝히면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세운 총리의 정책과 왕후의 견해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왕은 이 문제에 대하여 에스더의 의견을 받아 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왕은 쿠데타 이후 국정안정에 매우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만도 이를 이용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가지고 있는 깊은 민족적 열등의식을 보복으로 갚으려는 것입니다. 왕후로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에스더는 먼저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 3일의 금식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에스더가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에게 나온 진정성 있는 의견에 관심을 가지도록 매우 느리고 천천히 이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권위자들과의 문제가 생길 때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 권위자를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의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도록 기다리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그 사람에 대하여 존중감과 진정성을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창조의 선한 목적대로 인도하십니다. 에스더처럼 위기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나의 통치자로 결정권자로 인정하며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박아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왕이 되시도록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 특별히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가 충만한 열매를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 전문은 온누리신문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봅시다!

성경적 가정교육 ‘밥상머리교육’

식탁교제로 ‘안식일 영성’ 지킨 유대인들처럼



김현실 목사
(남양주 온누리교회)

내가 어린 시절에는 ‘아랫목’이 있었다. 추운 겨울날 온 가족이 아랫목에 웅기종기 모여 앉아 신김치에 군고구마를 먹으면서도 란도란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다. 밥상에 둘러앉아 식사할 때면 아랫목은 어른들이 앉는 자리였다. 가족 안에서의 질서가 은연중에 정해졌던 것 같다. 아랫목은 가족들이 모이고, 마음의 온기를 나누는 정감어린 장소였다. 요즘 사람들은 집안의 어느 장소에서 온기를 느끼고 있을까?

부모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를 잘 돌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으로 양육해야 한다. 또한 부모는 자녀가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정서, 인지, 영적인 면을 고루 살피고 보듬어야 한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청소년 기출, 학원 폭력, 다양한 중독문제 등 심각한 청소년 문제들을 앓고 있다. 안타까운 사실은 여러 연구와 논문들이 이러한 청소년 문제가 가정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 혹은 형제와의 관계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쉽 없이 너무 분주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를 돌아보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켰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 되었던 애굽 땅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셨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며 지키라고 하셨다. 그네 번째 계명이 “안식하라”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출 20:8-11).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었다. 애굽에서 종 되었던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쉴 수가 없었다. 안식이라는 단어가 없었다. 일만 하면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



“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듯이

가족이 함께 거룩한 식사시간을 지켜야 한다.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가 가족을 지키는 길이다.

”

성에게 “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야말로 은혜요, 축복의 말씀이었다. 이 말씀은 종노릇하며 쉽 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돈과 명예, 성공에 얽매어 쉽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다. 쉽을 원하면서도 쉬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아브라함 헤셀은 저서 《안식》에서 “기독교인들이 주일성수만 알았지 ‘안식일 영성’은 모르고 있다”며 “시간의 성소”를 말했다. 즉, 개인의 삶 속에서 하루가 되었건 몇 시간이 되었건 일체의 인위적인 행동을 멈추고 영·혼·육이 하나님과 존재론적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영성신학자 마르바 더튼은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제적 결과와 그 의미들을 ‘그침(ceasing), 쉬(resting), 받아들임(embracing), 향연(feasting)’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안식일의 쉬는 단순히 노동의 중단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활동으로부터 자유함이라고 했다. 쉽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경험하고 만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참된 안식 속에서 세상이 주는 안전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자각하고, 바쁜 일상에서 매달라가는 정서가 회복된다고 했다. 안식일은 소유 지향적인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존재 지향적인 방식으로 변하는 날이라고 정의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기간에도 그들은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거룩한 시간 즉,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의 독특한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었다. 저명한 유대인 문필가 아카드 하임은 “우리는 유대인이 안식을 보존했다기보다는 안식일이 유대인을 보존했다고 단언할 수 있으며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안식일이 유대인의 영혼을 회복시켜주고, 매주 그들의 영적인 삶을 새롭게 해주지 않았다면 유대인은 평일의 침울한 경험들 때문에 너무나 절망하여 물질주의와 지적타락의 바닥까지 떨어졌을 것”이라고 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격하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자동차를 타지 않고, 전기와 가스를 켜는 일조차도 멈춘다.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아서 층마다 자동으로 서는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을 정도다. 안식일에 모든 것이 정지 상태가 된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위해 음식도 미리 준비해놓고, 그 시간에 온 가족들이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휴식을 즐긴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을 가정에서 식탁을 중심으로 누린다. 이 같은 행위를 국민적으로 행하는 민족이 유대인이다. 그들에게 안식일은 모든 것을 멈추고,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다. 수천 년 동안이나 국가가 사라진 상황에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것이다. 안식일마다 이행되는 밥상머리교육에 근거를 두고 있다. 안식일 식탁은 유대인에게 최고의 학교이자, 교육의 장(場)이었다.

‘그침, 쉬, 받아들임, 향연’을 우리 식탁에도 적용하자!

나는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한 전통을 우리 식탁에서 적용해 보는 시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유대인들처럼 엄격한 기준과 복잡한 예식을 똑같이 따라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안식의 네 가지 의미 ‘그침, 쉬, 받아들임, 향연’을 우리 식탁에서 실천해 볼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면 모든 가족이 시간을 정해 모든 것을 중단한다. 안식을 위해 일, 행사, 모임, 공부 등을 중단한다. 식사시간에 휴대폰, TV, 컴퓨터 등도 중단한다. 온 가족이 서로를 배려하고 받아들이면서 격려하고 지지하는 식탁교제를 통해 마음의 힘을 얻는 것이다. 음식을 나누며 기쁨의 축제를 나눈다. 그리고 다시 세상 속에서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간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 이루어지는 안식을 통해 마음도, 가정도, 노동도 회복될 것이다.

가정 안에서 온기를 느끼는 곳은 어디이고, 행복감을 느낀 시간이 언제였는가?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 혹은 형제와의 관계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이유는 많다. 부모의 경우 긴 노동 시간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에 대한 분담 문제와 갈등, 가사노동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자녀들은 공부하느라 바쁘다. 엄청난 양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 이러한 이유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게 만든다. 성공과 성취에 대한 욕망에 예속되어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하라”는 계명을 주셨다. 다른 계명처럼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안식은 주일성수만의 개념이 아니다. 안식일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안식하기 위해서는 서로 배려하고 도와야 한다. 같이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축제를 벌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던 모든 일을 멈춰야 한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가족들과의 만남을 위해서 거룩한 시간의 성소를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은 것처럼 거룩한 시간의 성전에도 불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듯이 가족이 함께 거룩한 식사시간을 지켜야 한다.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가 가족을 지키는 길이다.

한국 선교, 그 흔적을 찾아서

순수하고도 아름다운 신앙과 사람들

국내 최고 복음화율 자랑하는 섬 ‘울릉도’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다. 본지에서는 ‘한국 선교, 그 흔적을 찾아서’를 주제로 여행도 하고, 순례도 할 수 있는 선교여행 코스를 추천하고 있다. 그 세 번째 코스는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울릉도다. 푸른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울릉도에 가면 122년 동안이나 이어지고 있는 순수하고도 아름다운 신앙과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울릉도는 빼어난 비경만큼이나 자랑할 게 또 있다. 바로 신앙이다. 울릉도는 1896년 처음 복음이 전해진 이래 우리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복음화율이 높은 곳이다. 도서지역 복음화율로만 비교하면 단연 으뜸이다. 해안도로를 따라 울릉도를 한 바퀴 돌면 기억에 남는 3가지가 있는데 푸른 바다, 깎아지른 절벽,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다. 울릉도는 복음화율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섬 지역 특유의 이상승배 문화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최근에 과거에 비하면 복음화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 걱정이긴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 주민들의 신앙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른다. 울릉도 구석구석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이 복음의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하루도 쉬 없이 밝히 비취주고 있기 때문이다.

울릉도 복음화와 교회이야기

1896년 경북 영천이 태생인 ‘최인회’라는 청년이 울릉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했다. 최인회는 화전밭을 개간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당시 서당선생이었던 이종우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전도가 자신의 사명임을 깨닫고 본격적으로 전도활동을 시작했다. 최인회는 북면(나리분지)일대에서 주로 전도를 했고, 주민들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렸다. 당시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던 10여 명의 성도들이 ‘석포침례교회’를 세웠다. 규모는 작았지만 영향력은 엄청났다. 석포침례교회가 세워지면서 울릉도 전체에 복음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지금 울릉도에 18개, 장로교 15개, 감리교 2개, 순복음교 2개, 군교회 1개 등 모두 38개 교회가 있는데 석포침례교회가 낳은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식적인 전도인이 울릉도를 방문한 것은 1910년인데 그 과정이 흥미롭다. 경북 영천에서 농사 짓던 김두건이 일본을 피해서 울릉도로 이주했다. 이때 김두건은 도(道)를 믿어야겠다는 생각에 김창규에게 육지에서 도사를 모셔올 것을 부탁했다. 도사를 모셔오기 위해 강원도 울진에 도착한 김창규는 그곳에서 한 백발노인을 만나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더니



저동항 전경(위), 불이 들어오지 않는 저동침례교회 십자가(아래).

그 노인이 예수교를 모시고 가는 것이 좋겠다고 추천했다. 그렇게 김창규가 울진 행곡교회에서 사역하던 김종희 전도자를 만났고, 김종희 전도자가 1906년 김창규를 따라 울릉도에 들어와서 김창규의 집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 당시 예배를 드리던 집이 지금의 ‘저동침례교회’가 되었다. 김창규 전도자는 1910년에 울릉도로 공식적인 파송을 받았다. 그 이후에도 울릉도의 부흥은 계속 이어졌다. 교역자들과 성도들은 밤이건 낮이건 쉬지 않고 전도했고, 일제 치하와 6.25 전쟁 중에도 복음을 전파했다. 복음을 전하려고 폭설을 뚫고 가다 소천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을 정도였다. 그들 모두가 울릉도에 기독교 신앙이 뿌리내리게 만든 신앙의 어머니들이다. 이러한 역사 덕분에 울릉도는 30%를 웃도는 복음화율을 유지하고 있다.

교회 떠난 어르신들 마음 돌리고, 차세대와 청소년 위한 사역 절실

보통의 섬 지역과 달리 풍어제 등으로 안전과 풍어를 비는 모습을 울릉도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주민들 대부분이 무속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활과 영혼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듯 울릉

도는 사동항에 있다. 사동항은 울릉도에서 3번째로 큰 항구다. 사동침례교회는 2년 전 큰 침수피해를 입었다. 예배당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서 교회를 재건축 했는데 그 과정에서 몇몇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 사동침례교회는 울릉도에서 가장 깔끔하고 좋은데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몇 명 되지 않는다.

“건축과정에서 어르신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이렇게 교회를 떠난 어르신들이 정말 많아요. 마을에 교회 안 다녀본 어르신들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분들을 다시 교회로 이끌고 싶는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네요.”

탁 목사의 말처럼 울릉도 장년 이상 주민들 대부분이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다. 한때 울릉도에는 복음화율이 60~70%가 넘는 마을도 많았다. 문제는 한번 교회를 떠난 어르신들의 마음을 돌리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이다.

“교회에 부임한지 2년이 넘었는데 마을 어르신들이 교회가 생길 때 건축에 참여하셨어요. 신앙생활은 안하셔도 교회에 대한 애정이 많으세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자주 바뀌는 탓인지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최성환 목사가 섬기고 있는 저동침례교회는 역사가 110년이 넘었다. 울릉도에 세워진 첫 번째 침례교회다. 저동항 앞바다에서 바라보면 교회와 십자가가 눈에 띄는 만큼 큰 교회이다. 최성환 목사의 고민은 차세대다.

“저동침례교회는 울릉도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교회인데 차세대가 없어요. 자모실을 언제 사용했는지 모를 만큼 낡았답니다.”

울릉도에 차세대와 청소년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시설이 있고 마을마다 차세대가 적어도 한두 명씩은 있다. 그런데 울릉도 교회 중에서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를 찾기가 어렵다.

“교회 밖에는 분명히 아이들이 있어요. 시설은 정비하면 되고, 양육자가 부족하면 성도들을 훈련시켜 세우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못하고 있어서 정말 답답해요.”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두 교회만의 고민이 아니다. 울릉도에 있는 38개 교회가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

울릉도는 여행하기에도 좋지만 사역하기에는 더 좋다. 울릉도에서 만나는 주민들과 교회 자체가 섬김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해안도로를 따라 가다 눈에 띄는 교회에 불쑥 찾아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목회자들에게 큰 힘이 된다. 교회를 떠난 어르신들을 다시 교회로 이끌고, 차세대와 청소년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꼭 필요한 사역이다. 그 일을 하러 올 여름 온누리교회가 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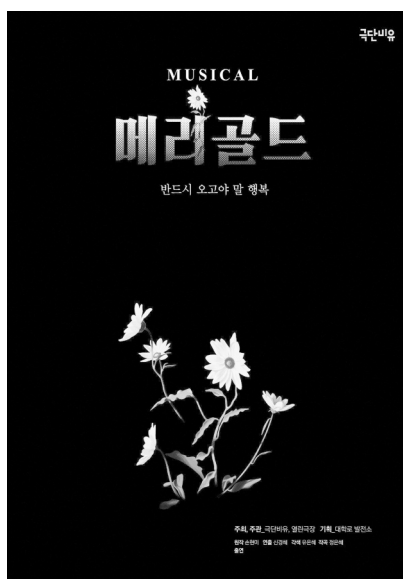
문의: 사동침례교회: 054-791-2464
저동침례교회: 054-791-2457

탁수근 목사가 목회하고 있는 사동침례교회

볼만한 공연 뮤지컬 '메리골드'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대한민국은 2003년 이후 OECD 국가 중 에서 자살률 1위(2015년 기준)라는 기록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불명예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어찌됐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불안과 염려 속에 살고 있기 때문 아닐

까. 목숨마저 버릴 수밖에 없는 불안과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선물해주는 한줄기 빛과 같은 뮤지컬 한 편이 막 올랐다. 자살예방 뮤지컬 '메리골드'다.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뮤지컬 메리골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복음 안에서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작품이다. 뮤지컬 메리골드를 보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절절한 사랑과 따뜻하고 포근한 위로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저마다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동반자살카페를 찾았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전학생 화니, 가족들을 모두 미국으로 떠나보낸 기러기 아빠 정수, 아버지의 폭력과 어머니의 자살로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건영, 사랑하는 남자에게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은 민아, 오로지 공부

만 강요하는 엄마에게 지쳐있는 보영이 뮤지컬 메리골드의 주인공이다. 그들이 고통 없이 죽게 해준다는 카페운영자 동준의 계획대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로 모였다. 그리고 각자의 아픔을 나누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부터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를 해준다. 그렇게 목숨을 버릴 만큼 아파서 신음하던 이들이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한다.

뮤지컬 메리골드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를 선물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진정한 행복과 소망을 가져다준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메리골드'는 금송화로 불리는 꽃의 이름이다.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다. 꽃말 자체가 작품의 중심 메시지가기도 하다.

뮤지컬 메리골드에는 배우 장재호(동준 역), 배우 장원재(정수 역), 배우 정다운(민아 역), 배우 박웅서(건영 역), 배우 안영은(화니 역), 배우 이정원(보영 역)이 출연한다.

뮤지컬 메리골드는 2014년 경기도 교육

청 문화콘텐츠 사업 선정, 2016년 강원도 교육청 문화콘텐츠 사업 선정, 2016년 세종정부청사 생명존중 교육자료 발표 및 수기 공모전에서 수상할 정도로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뮤지컬 메리골드를 제작하는 '극단비유'는 예수님의 비유가 되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관공서 등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뮤지컬 메리골드는 만 13세 이상(중학생 이상)부터 관람이 가능하다. 9월 30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오후 8시, 금요일에는 오후 5시, 오후 8시,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오후 1시, 오후 4시, 오후 7시, 주일에는 오후 3시, 오후 6시 열린극장(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58-12)에서 막 오른다.

단체관람 및 공연 티켓 관련 문의는 전화 (010-8236-7162)로 하면 된다.

김은애 실장(기획 담당)은 "뮤지컬 메리골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위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070-8285-0211

010-8236-7162

기고



곽상학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관촬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어디서 배워왔는지, 요 근래 아들내미가 온종일 흥얼거리는 통에 나도 모르게 전염

된 유행가이다. 이 노래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난다. 고무딱지가 최고의 자산인 여덟 살 철부지가 사랑의 의미를 알리 만무한 터. 꽤나 중독성 있는 그 멜로디에 나도 덩달아 합세하다가 문득 궁금해졌다. 온통 사랑으로 도배된 노랫말의 결말이 도대체 뭐란 말인가?

인류 역사상 가장 지켜야 할 숭고한 가치가 있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사랑일 것이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한다. 그렇게 그들은 연인(戀人)이 된다. 그렇게 사랑을 하다가 어느 순간 연인에게 올인하기로 결정한다. 그렇게 부부가 된다. 한 가정이 시작되고 자녀들과 함

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이게 된다.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궁극의 사랑, 삶의 원천(源泉)이 그렇게 탄생하는 것이다. 단순히 유행가의 한 구절처럼 볼만한 멜로드라마의 소재 정도가 아니라 말이다.

우리 조상들은 다정한 부부를 말할 때 금슬(琴瑟)이 좋다고 했다. 금슬을 금실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의미이다. 금(琴)과 슬(瑟)은 서로 다른 악기의 이름이다. 금(琴)은 거문고이고, 슬(瑟)은 비파(琵琶, 하프)라는 고대 현악기이다. 고대에 음악을 연주할 때 금과 슬이 꼭 붙어 다녔다. 둘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과 슬이 서로 화답한다는 뜻의 '금슬상화(琴瑟相和)'나 '금슬지락(琴瑟之樂)'과 같은 말이 생겨났다. 금과 슬의 관계처럼 부부사이도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고, 조화를 이루어야 화목한 가정이 된다.

A.D. 41~54년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통치하에서 로마로부터 추방되어 고린도로 이주해 살고 있는 한 부부가 있었다. 로마의 귀족신분을 미련 없이 벗어 던지고 천막 만드는 일을 업으로 삼아 바울의 2차 선교사역을 안팎으로

금슬(琴瑟) 좋은 부부

조력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다. 그들은 보금자리이자 노후대책인 집을 과감하게 예매처소로 제공하고, 로마로 건너가 로마 교회를 섬기는 등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은 부부였다. 평생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간직하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보여 준 이 부부는 필경 금과 슬의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금슬상화다. 성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언급된 순서만 보아도 남편 아굴라는 늘 아내 브리스길라를 먼저 세워주는 대표적인 애처가이자 금슬지락의 대명사 아니었을까.

이들과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또 한 부부가 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필요한 이웃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그 대금의 일부를 감추고 전부를 바친 것처럼 가장했다가 성령님을 속인 죄목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 부부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인 남편 '아나니아'와 아름다다는 뜻의 아내 '삽비라'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의 좋은 의미를 인생에서 구현해내지 못하고 말았다. 아나니아와 삽

비라 부부가 남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눈치를 살펴 가면서 슬금슬금 지은 죄는 구약시대 아이성 공격을 패하게 만든 아간의 죄와 비견되는 죄로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기억했어야 했다. 그 옛날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감췄던 굴에 숨어 지내며 새벽에 절절히 외쳤던 그 노래를 말이다.

"오 하나님여,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하프와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시 57:7~8).

다윗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했다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인생, 그 누구보다 금슬 좋은 부부가 되지 않았을까? 거문고와 비파의 조화로운 어울림이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듯이 비파(瑟)와 수금(琴)으로 평생토록 주의 은혜를 연주하는 부부야말로 진정한 금슬(琴瑟) 좋은 부부일 것이다.

“더 멀리, 더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

수원 온누리교회 창립 15주년 감사예배 드려



수원 온누리교회 창립 15주년 기념케이크 커팅식.

지난 1일 수원 온누리교회 창립 15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수원 온누리교회 예배에서는 교회 창립 15주년을 축하하는 영상 상영과 케이크 커팅식 등이 이어졌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수원 온누리교회가 더 멀리, 더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박영한 장로는 2부 예배에서 “수원 온누리교회가 더욱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성

도들은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들도 교회 창립 15주년을 기념하며 교회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다. 손항숙 권사는 “수원 온누리교회는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라고 했고, 박금순 집사는 “수원 온누리교회에서 차세대들이 예배드리고 뛰노는 모습을 볼 때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느껴져서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신기섭 담임목사는 “수원 온누리교회가 앞으로도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고백했다.

수원 온누리교회는 2003년 국내 2번째 캠퍼스로 창립됐다. 지역 복음화에 힘쓰고, 다음세대를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는 젊고 역동적인 교회로 자리매김 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의료선교팀 CMN 여름 아웃리치 시작

7월 11일~9월 27일까지 7개 팀 200여 명 참가

온누리교회 의료선교팀 CMN(Christian Medical Network)이 지난 6일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여름 아웃리치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여름 사역에 돌입했다. 7월 11일 인도네시아로 떠나는 마노아팀을 시작으로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캄보디아에서 진행되는 본부팀 아웃리치까지 총 7개 팀 200여 명이 참가한다. CMN 본부에서는 캄보디아 아웃리치 팀원을 모집하고 있다. 의료인뿐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참

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전화로 하면 되고, 회비는 110만원이다.

이대현 팀장(마노아팀)은 “이번에는 이슬람 가정을 방문해서 의료사역을 진행할 것”이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성민 목사(CMN 담당)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증인으로 선교지를 섬길 수 있도록 잊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02-3215-3786

팀	일시	장소
마노아	7/11~16	인도네시아
살롬	7/22~26	필리핀
BEE	7/24~29	인도네시아
드림	8/9~12	스리랑카
토티	8/10~15	인도네시아
라파	8/3~5	전남 구례
CMN 본부	9/20~27	캄보디아

예수제자학교(JDS) 394명 열방 누빈다!

6개 학교 39개 팀 16개국 28개 지역 아웃리치

예수제자학교(JDS: Jesus Disciple School)가 상반기 훈련을 모두 마치고 여름 아웃리치를 떠난다. 올 여름 JDS 아웃리치에는 6개 학교(서빙고 주간·야간, 양재 주간·야간, 부천 주간, 수원 야간) 소속 제자 394명이 참가해서 16개국 28개 지역을 누빌 예정이다.

JDS 여름 아웃리치는 지난 7월 2

일 떠난 양재 주간반 인도 아웃리치를 시작으로 8월 11일까지 몽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지에서 복음을 전한다. 사역도 풍성하다. 어린이 사역, 전도, 벽화, 농장사역, 한국음식 만들기, 공화사역 및 심방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농어촌선교팀 연합 아웃리치 팀원 모집

농어촌선교팀 연합 아웃리치에 함께 갈 팀원을 모집하고 있다. 농어촌선교팀 연합 아웃리치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전라남도 구례군 온누리상동교회와 수평성결교회에서 진행된다. 아웃리치에서는 의료사역, 마을잔치, 찬양집회, 축호전도 등의 사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어촌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전화로 하면 된다.

문의: 010-3485-5893

인천, 미디어 장비 교육 세미나

인천 온누리교회가 지난 7월 부터 ‘미디어 장비 교육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7월 14일 오후 1시에는 제니샘 8층에서 세미나가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에는 각 캠퍼스 예배음향, 영상 담당자나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문의: 010-5351-9241



온누리교회 간사들이 간사수련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간사”

간사수련회, 국내 10개 캠퍼스 130여 명 참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간사가 되겠습니다.”

2018 간사수련회가 지난 7월 3일부터 4일까지 1박2일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간사’를 주제로 강원도 평창 화이트호텔에서 진행됐다.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 간사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준호 목사(서빙고 목회행정 담당)는 간사들에게 “말씀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과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승희 목사(선한목자교회)는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간사들이 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양성민 목사(양재 목회행정 담당)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님을 섬기듯 서로를 섬기는 간사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신민수 간사(양지 온누리교회)는 “이번 간사수련회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다.

/ 권찬송 기자

일본어예배, 여름사역 기금 마련 자선장

8일 차세대 캠프, 22일 성인부 아웃리치 후원

일본어예배가 여름사역 기금 마련을 위한 자선장을 오늘(8일)과 22일(주일) 연다. 오늘 열리는 자선장 수익금은 파푸스(초등)와 클로버(중고등부) 캠프, 22일 열리는 자선장 수익금은 성인부 아웃리치를 후원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일본어예배는 7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상냥한, 기쁜, 따뜻한’을

주제로 파푸스(초등) 캠프를 개최한다.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는 클로버(중고등부) 캠프 및 비전트립이 경기도 용인과 서울 등지에서 실시된다. 8월 1일부터 6일까지는 청년부 아웃리치, 8월 15일부터 20일까지는 위십팀이 일본 우에다 온누리교회로 아웃리치를 간다.

“더욱 사랑하는 부부 되겠습니다”

가정사역공동체가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1일까지 의정부 펠로우십 교회에서 태국인 이주민 40여 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부부학교’를 개최했다.

이번 행복한 부부학교에서는 ‘성경적인 가정경영법’과 ‘부부 사랑법’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졌다. 박일면 장로(가정사역공동체), 양병자 권사(무릎선교기도학교 팀장), 조용

숙 권사(가정사역공동체), 신현일 안수집사(가정사역본부 팀장), 김봉학 집사(가정사역공동체)가 강의했다.

백운화 사모(펠로우십교회)는 “4주 동안 진행된 행복한 부부학교는 태국인 이주민들에게 아주 좋은 모델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텐, 우아 부부(펠로우십교회)는 “앞으로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더욱 사랑하는 부부가 되겠다”고 고백했다.

